

# 또 홈런포 ... 시범경기 펼 펼 나는 김도영



김도영이 시범경기 두 번째 홈런을 날리며 심상치 않은 시즌을 예고했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 3차전에서 6-2 승리를 거뒀다.

김도영이 요키시를 상대로 시범경기 2호포를 기록하는 등 멀티히트·2타점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KIA 앤더슨과 키움 요키시 두 외국인 투수의 맞대결이 펼쳐진 이날, KIA가 먼저 0의 침묵을 깼다.

3회초 2사에서 타석에 선 김도영이 요키시의 초구 투심을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선취점을 만들었다. 지난 13일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페냐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영의 2호포다.

4회말 KIA가 역전을 허용했다. 이날 선발로 나온 앤더슨이 4회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2사에서 김태진을 불넷으로 내보낸 앤더슨이 이형종과의 승부에서 스트레이트 불넷을 기록했다. 정명원 코치가 잠시 마운드를 방문한 뒤 앤더슨의 투구가 이어졌다.

앤더슨이 송성문을 상대로 1루 땅볼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갔던 앤더슨이 포구 실책을 하면서 2루에 있던 김태진이 3루를 돌아 홈에 들어왔다.

KIA는 투수 교체에 나섰고 사이드암 윤중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하지만 윤중현이 김재현에게 우중간 적시타를 맞으면서 1-2가 됐다.

이어진 5회초 공격에서 KIA가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1사에서 한승택과 김도영이 이어 김선빈까지 불넷으로 걸어나갔다. 이어 소크라테스가 우측으로

KIA, 고척돔서 키움에 6-2 승리  
김도영 홈런 포함 2안타 2타점  
앤더슨 3.2이닝 2피안타 2실점

공을 보내 2타점 적시타를 만들었다.

6회초 이우성의 3루타로 4-2를 만든 KIA는 8회 점수를 보냈다.

선두타자 변우혁의 좌전안타에 이어 대타 고종욱의 중전안타가 나왔다. 김호령까지 안타행진을 이어가면서 5-2가 됐다.

이어진 무사 1·2루에서 이우성이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다. 스타트를 끊었던 김호령도 태그아웃 되면서 아웃카운트 2개가 동시에 올라갔다.

하지만 신범수가 불넷을 골라내면서 분위기를 살렸고, 김도영이 해결사가 됐다.

김도영이 2루수 옆으로 빠지는 우전 안타를 날리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KIA는 김도영의 타점으로 6-2를 만들면서 전남 한화전 8-3승리에 이어 연승을 기록했다.

한편 시범경기 첫 등판에 나선 앤더슨은 3.2이닝 2피안타 3사사구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불펜에서는 좌완 신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졸 2년 차 최지민이 1.2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홀드를 기록했다.

'고졸 루키' 광도규도 13일 한화전에 이어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라 실력을 점검 받았다.

광도규는 첫 타자 장재영을 불넷으로 내보냈지만 박찬혁을 2구 승부 끝에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김건희와 승부에서는 송구실책을 기록하면서 1사 1·2루에 몰렸지만 김시양과 송재선을 연달아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8회초 우전 안타를 날린 뒤 공을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클린스만 감독과 차두리 기술고문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15일 경기도 고양 YMCA 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 KFA 지도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차두리 기술 고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홀란 혼자서 5골... 맨시티, UCL 8강 안착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혼자서 5골을 폭발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가 라이프치히(독일)를 7골 차로 완파하고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 안착했다.

맨시티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 2차전에서 라이프치히를 무려 7-0으로 대파했다.

1차전 1-1로 비긴 맨시티는 1, 2차전 합계 점수 8-1로 라이프치히를 누르고 8강으로 올라섰다. 이로써 맨시티는 2017-2018시즌부터 6시즌 연

속 UCL 8강 진출을 이뤘다.

이날 경기는 맨시티가 UCL에서 거둔 최다 골차 승리 타이 기록이다. 맨시티는 2019년 UCL 16강 2차전에서 살게04(독일)를 7-0으로 격파한 바 있다.

전반에만 헤트트릭을 완성한 홀란은 후반에도 2골을 더 몰아쳤다.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유폴에 따르면 홀란은 UCL 경기에서 5골을 쏟아낸 세 번째 선수가 됐다.

2014년 루이스 아드리아누가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 소속으로 바테 보리소프(벨라루

스)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5골을 넣은 게 가장 최근 기록이다.

2012년 리오넬 메시(현 파리 생제르맹)도 바르셀로나(스페인) 시절 레버쿠젠(독일)과 16강전에서 5골을 터뜨렸다.

통산 UCL 25경기에 출전한 홀란은 가장 적은 경기로 30골 고지를 올랐다.

또, 22세 236일의 나이로 이 기록을 써 최연소로 30골째를 찍은 선수로 UCL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인터 밀란(이탈리아)은 포르투(포르투갈)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1, 2차전 합계 1-0으로 UCL 8강으로 진출했다. /연합뉴스

## K리그2 전남, 안방서 김포 상대 연승 도전

워밍업을 끝낸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연승을 준비한다.

전남은 지난 11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36분 발디비아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개막 후 세 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승이자 앞선 경남전 0-5 대패를 잊게 한 승리였다.

K리그 데뷔골을 결승골로 장식한 발디비아는 3라운드 MVP에도 선정되는 등 K리그 적응을 끝내고 본격적인 골 사냥을 시작했다.

원정길에서 승리를 챙긴 전남은 김포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오는 19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와 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전남에 가세한 '베테랑 수비수' 김수범은 "힘겨웠던 서울 이랜드 원정경기에서 선수들이 잘 버티내며 승점 3점을 챙겼으며 '기세를 이어 홈팬들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연승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K리그에 뛰어난 '2년 차' 김포는 전남에 만만치 않은 상대다.

전남은 김포와의 4차례 맞대결에서 2무 2패에 그치면서 고전했다.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대, 이장관 감독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열세 만회에 나선다.

이장관 감독은 "23시즌 김포의 모든 경기를 분석했다. 김포는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축구를 구사한다"며 "작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전남답게 경기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은 양측 원포워드 추상훈과 플라나를 활용해 상대 골대를 노린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공격수 시모비치를 활용해 제공권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적지에서 승전보를 울린 전남이 김포와의 홈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골프공 비거리 성능 제한한다 ... "350야드 이상 NO"

### 미국골프협회, 3년 내 규정 바꿀 듯

앞으로 프로 골프 대회에서 350야드 이상 날아가는 초장타를 치는 선수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 15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프로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공 성능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A와 USGA는 골프공을 시속 127마일(약 204.4km)의 스윙 스피드로 때렸을 때 비거리가 317야드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3년 안에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프로 선수들이 대회에 들고오는 골프공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R&A와 USGA의 계획대로 골프공 성능이 제한되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드라이버 티샷 거리는 약 15야드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골프 볼 성능 제한은 그동안 늘어나기만 하는 비거리 때문에 골프의 본질이 훼손되고, 골프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R&A와 USGA의 오랜 우려 때문이었다.

장타자가 자주 생기면서 길어진 코스는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물과 약품 사용도 증가해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R&A와 USGA의 생각이다.

R&A와 USGA는 드라이버 길이를 46인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아 결국 골프 볼 성능 제한이라는 강수를 들고나왔다.

뉴욕타임스는 R&A와 USGA가 주관하는 US 오픈과 디오픈에서는 2026년부터 골프공 성능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골프공 성능 제한은 그러나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R&A와 USGA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규정은 내년 1월부터 바꾼다는 복안이지만, 골프 볼 개발과 제조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3년 뒤에는 겨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